

# 영육일체설을 논하는 온전자

성경에 “하나님은 육체의 하나님(민수기 27:16)”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누가복음 20:38)”이라고 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인간의 육체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 영육분리설은 비성경적인 학설이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영육 분리설을 논하고 있습니다. 육이 죽어도 영이 떠나서 영의 세계에 가서 살게 되어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는 영육일체설로 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생명은 빛이요 빛은 곧 성령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서 17장 11절에는 “생명은 피요 피는 생명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빛이요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생명이 곧 하나님의 영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곧 피라고 하였으니 피가 영이라는 얘기요? 과학적으로 피의 작용이 마음작용이요? A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마음이 꼼꼼하게 움직이고 B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마음이 사교적이요? O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고집이 세고 과격한 성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과학적으로 피의 작용이 마음작용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마음이 영이라고 성경에 써어져 있는데 마음이 영이라면 피가 영이라는 얘기요? 피가 영이라면 피로써 살이 되고 몸이 되니까 사람의 몸 자체가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16절에 “하나님은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인간의 육체와 같다는 거요? 하나님의 피가 곧 하나님의 생명이고, 생명이 피라고 성경에 써어져 있으니까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시편 82편 6절에 “너희는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라고 하였죠? 사람들은 전부 신(神)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몸도 신이니까 신이라고 했죠?

사람의 몸이 신이 아니라면 사람에게 “너희는 신들이니”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요? 사람이 신이니까 사람 몸 자체가 영이라는 얘기예요. 영육일체설이 성경에 뚜렷하게 써어져 있는 거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종교들은 전부다 영육분리설을 논하고 있는데 이 영육분리설은 비성경적인 논리요, 비성경적인 학설입니다.

사람 자체가 신이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지존자가 하나님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신명기 14장 1절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니라.” 이렇게 써어져 있는 걸 보아서도 분명히 사람이 하나님의 신의 자식이라는 거요? 하나님의 신의 자식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거예요? 개자식은 개요? 소 자식은 소요? 곰 자식은 곰이요? 하나님의 자식만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요? 오늘날 우리나라 민족 종교에서는 인내천 사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우리 민족 종교의 말이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런고로 오늘날 영생의 신의 하나님이었던 아담과 해와가 마귀에게 점령당하여 마귀의 포로가 되는 순간 바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죠? 이것을 모든 인간들을 속이기 위하여 흠을 빚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써어져 있죠? 그렇게 써 썼지만은 그 말씀은 짝이 없는 말입니다.

## 짝이 없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버라. 짝이 없는



구세주 조희성님

말씀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입으로 모았음이라.” 짝이 없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는 거요? 그러니까 흠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은 짝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죠? 마귀가 조작한 말인 고로, 짝이 없는 말인 고로 그러고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요? 성경에는 마귀가 그렇게 쓰게끔 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쓰게끔 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짚을 찾아보고 그 말씀이 짝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과 짝이 있는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써어져 있고, 부활함을 입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서로 짝이 있는 말씀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요? 부활함을 입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마귀 육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영이 마귀를 죽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마귀가 있었던 자리에 좌정했을 때에 ‘성령으로 거듭났다’도 되고 ‘부활함을 입었다’도 되는 거요?

또한 ‘생명과일을 먹었다’도 되는 거요? 생명과일은 영생의 영이요, 영생의 영은 마귀를 이긴 승리의 영이 영생의 영인 고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승리의 영이요, 부활함을 입은 영이 승리적인 영인 고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생명과일이 틀림이 없는 거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써어져 있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 승리한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을 지금 선물로 부여주고 있죠?

그런고로 오늘날 승리자 구세주가 부여주고 있는 그 은혜는 승리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치 못한 것은 폐하리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것도 폐하고, 영육분리설도 폐하며 죽음도 폐한다.

## 온전자가 바로 전지전능한 구세주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치 못한 것은 폐하리라.”라는 말씀이 써어져 있습니다. 온전한 것은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영생의 영이

온전한 것이지 영생의 영이 아닌 죽음의 영은 온전한 영이 될 수 없는 거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치 못한 것이 폐하리라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구원론이라고 할고 있었던 것을 전부 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것도 폐하게 되는 거요? 또한 그냥 믿는 마음이 믿음이라는 것도 폐하게 되는 거요? 영육분리설도 폐하게 되는 거요?

오늘날 온전자가 누구나 하면 구세주가 온전자인 것입니다. 구세주는 전지전능자요, 못할 것이 없는 뉘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다 되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온전자인 고로 온전자가 구세주가 되는 거지, 온전치 못한 자가 구세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자인지 온전자가 아닌지 알아보려면 지금까지 한 행적을 보아서 알 수가 있는 거요? 이 사람이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공산주의라는 건 사람으로서서는 없앨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다는 사람도 공산주의를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이념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 심어져 있는 이념을 없앤다는 건 영적으로 승리의 영이 아니면, 전지전능한 영이 아니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공산주의의 이념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념을 죽여 없애버렸다는 증거가 세계 공산국가가 말살된 증거요? 그것이 전지전능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 공산주의 하나님 없애가지고는 전지전능자라고 하는 증거를 내놓을 수가 없는 고로 “태풍

을 못 오게 한다.”고 약속하여 21년 동안 태풍 못 불어오게 했죠? 지금도 태풍 불어오는 기간이지만 태풍이 불어와 봤자 일본 열도를 향해서 불어가는 그런 정도예요. 우리 한국에는 얼씬거리지 못해요. 왜? 한국에는 전지전능자가 있는 고로 태풍을 불어오게 하는 그 마귀가 얼씬도 못하는 것입니다.

## 5대공약을 이행한 것을 보아 온전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여름장마를 못 지게 했다고 그랬죠? 6월 15일부터 7월 15일 어간에 계속해서 오는 비를 계속 해마다 못 오게 한다는 건 사람으로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할아버지들이 만날 장마가 저가지고 폐농이 되어서 그대로 흉년들어서 굶주리니까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장맛비를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해봤지만 그게 아무리 해봐도 되지 않았던 일을 오늘날 이긴자 구세주가 계속해서 21년 동안 또 앞으로 계속해서 장맛비를 못 오게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전지전능자가 틀림없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계속해서 풍년들게 하고 있죠? 또한 계속해서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딱 막아냈죠?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으니까 마귀 마음을 죽여 버리니까 마귀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2001. 9.14 말씀 중에서 말씀 정리/박영하



# 인간 조희성 속의 옛사람을 죽이고 점령하신 하나님

## 하나님께서 인간을 점령하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우주 저 너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재하시는 줄로만 알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핏줄을 타고 숨어서 역사하셨던 것이다. 마치 막에는 단지와 자손인 대한민국 사람 ‘박태선’이란 이름으로 이 세상에 전면 등장하시기에 이른 것이다. 박태선 장로님 속에 숨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육천 년 전에 잃었던 2위(位)인 아담과 해와를 찾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셨다. 수십 년 간 갖은 모양으로 죄인 가운데 두 씨를 찾기 위해 말로 할 수 없는 필박과 수모와 죽을 고초를 당하신 끝에 1980년 10월 15일자로 잃었던 아담과 해와를 찾는데 극적으로 성공하신 것이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긴자의 몸으로 옮겨 완성이 되어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분신인 모든 만물과 인생들을 살리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의 빛의 세계였던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잃고 수십 억 인간으로 쪼개지고 나뉘어져 슬픔과 탄식과 괴로움 속에 서로 죽이고 죽는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로 떨어진 것이었던

것이다. 급기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7단계를 거쳐 완성된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자식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구세주’의 사명을 다하고 계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인간 속의 마귀를 죽이고 ‘구세주’가 되는 것이지 달리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인간이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설령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구세주라고 친다면 예수가 사람을 죽지 않게 영생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지 못하고 사후의 심판, 사후의 천당, 지옥 따위나 말했던 것을 보아가짜가 분명한 것이다. 성경에 사람이 죽는 것은 또렷이 ‘헛값으로 죽는다’고 하였는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말하지 못하고 예수는 ‘죽어서 천당’ 운운하였으니 논리와 상식에도 맞지 않는 궤변론자의 말일 뿐인 것이다. 결코 인간 ‘조희성’이 구세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7단계를 거치면서 마귀의 비밀과 무기를 파악하여 이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완성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재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이영자 총재께서 김옥순 승사 임명장 수여시(2016. 1.17) 내린 이슬성신 이슬성신은 구세주의 영으로서 보광하신 후에도 계속 내리고 있다

## 옛 사람이 없어지니 자신의 이름과 어디서 살았는지도 잊어버려

과거 조희성은 죄인 중의 죄인이었으며, 마귀 중의 괴수 마귀였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희성이라는 마귀를 직접 때려잡아 그 몸을

탈환하여 소변으로 대변으로 죄(마귀)의 피를 3년간 쏠게 만들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새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손톱 발톱도 다 빠지고 새로 돌아나오고, 피부도 수십 번 새로 바뀌는 과정을 겪었다. 또 손가락이 뒤로 휘어 손등에 가서 닿는

정도도 빠도 어린아이처럼 물렁물렁하게 유연해졌다. 상체를 뒤로 쏠면 머리가 발뽀뽀의 땅에 닿곤 하였다. 어느 정도 죄인의 탈을 벗게 되는 과정에서 계속 소변으로 피가 쏟아지면 서 몸은 더 가벼워지며 은혜는 점점 강하게 연결되었다. 나중에는 대변으로 핏덩이가 쏟아졌다.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피로 새로 조성되어 완전히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옛날 조희성을 형성했던 피와 몸은 모두 대소변으로 쏟아져 나가 없어지고 바뀌어져 온전한 하나님의 피, 의의 피로 가득 차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름도 잊어버리고 나이도 잊어버리고 수십 년간 살았던 집도, 주소도 다 잊어버린 상태가 되었던 것이다. 완전히 옛 사람이 죽어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결정적 증거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성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누구였던가 이름이 뭐든가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우연히 일주일 후, 밀실에 들어갈 때 입고

들어간 양복 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견하여 꺼내 보고서야 ‘아! 내 이름이 조희성이었구나. 주소가 경기도 부천시 법박동 28번지 C5동 4호실이었구나.’ 하고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긴자가 되어 해와이긴자께서 특별히 집에 갔다 오라고 하시길래 “예”하고 대답은 했으나, 어디 집을 알아야 찾아 갈 것이 아닌가! 없으면 코담을 곳인 신앙촌 집을 찾아가는데도 거기서 어딘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소를 갖고 물어 물어 신앙촌까지 간 후, 어른에게 물어보면 분명히 미쳤다고 할 것이고 해서 어른에게는 물어볼 수 없어 꼬마에게 물어보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꼬마를 잘 몰랐어도 그 꼬마는 이 사람을 잘 알았던 모양이었다. “여기, C5동 4호실이 어디야?” 하고 물었더니 꼬마는 쳐다보면서 의아하니 이 사람의 아래 위를 훑어보면서 못마땅하다는 어조로 “아! 여기잖아요?” 하는 것이었다. 그 꼬마는 이 사람이 집을 알면서도 괜히 물어보며 놀린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다.\*